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세 둔화
  - 3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4.5로 전년동월대비 18.7%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증가
  - 3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9%증가, 백화점은 1.8%, 대형마트는 4.3%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원인으로 사업체 수 증가 및 의복, 주방용품, 음식료품, 화장품의 판매호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로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도시 평균 상승률(0.3%)와 동일
  - 전월에 비해 배추, 돼지고기 등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1.7%), 교통부문(0.8%)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임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 12월 이후 감소세 지속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한 61.2%로 나타남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남,여 각각 -2.4%, -2.2% 감소
  - 4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6명(-2.3%) 감소한 4,833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8천명(-2.4%), 여자는 48천명(-2.2%)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0%감소하였으나, 전국대비(-2.8%) 0.2%p 높음
- 서울의 실업률(5.0%)은 전국의 실업률에 비해 1.2%p 높음
  - 4월 서울의 실업률은 5.0%로 전년동월대비 1.1%p상승, 남자는 1.5%p상승, 여자는 0.6%p 하락

**부동산**

- 3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716십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1% 증가
  - 공공부문은 사무실 및 관공서 건립공사 수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민간부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무실 공사 수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 4월 기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 큰 폭 반등
  - 강남지역은 제2롯데월드 건설 및 재건축 규제완화, 주택가격 저점도달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월 하락에서 큰 폭 반등
  - 강북지역은 용산구가 한강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공람 및 한남뉴타운 내 토지거래 허가면적 완화에 따른 단독주택 거래 증가로 큰 폭 반등
- 4월 기준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다소 둔화
  - 강북지역은 용산구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크게 상승, 마포구도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물량 부족현상을 보이며 높은 상승률 기록
  - 강남지역은 신규 아파트 물량이 소진된 가운데 신혼부부 등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규모 전반에 걸쳐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월에 비해 상승세는 다소 둔화

**금융**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3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1조 4,440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89% 증가
- 3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559개로 전월대비 10.6%(150개) 증가
- 3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92개로 전월보다 26.0%(19개) 증가
- 4월 서울시 수입과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4월 서울의 수출은 26.1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7.9% 감소. 수출 1순위는 편직물, 다음은 자동차부품, 기타섬유제품, 반도체 등의 순
  - 4월 서울의 수입은 62.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3.8%의 감소율을 기록.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의류 등의 순

## | 생 · 산 |

### 3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세 둔화

#### ■ 3월 산업생산 광공업은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부진

- 전년동월대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및 부품 등에서 부진하여 10.6%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0.7%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여 0.6% 감소

####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세 둔화

- 2009년 3월 중 서울시 광공업생산지수는 94.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8.7% 감소
-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의복 및 모피, 기계장비 등은 큰 폭으로 감소
-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27.2%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마이너스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및 경공업 감소세 지속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5.9% 로, 감소세는 지속되나 감소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4% 로, 마이너스 감소세 지속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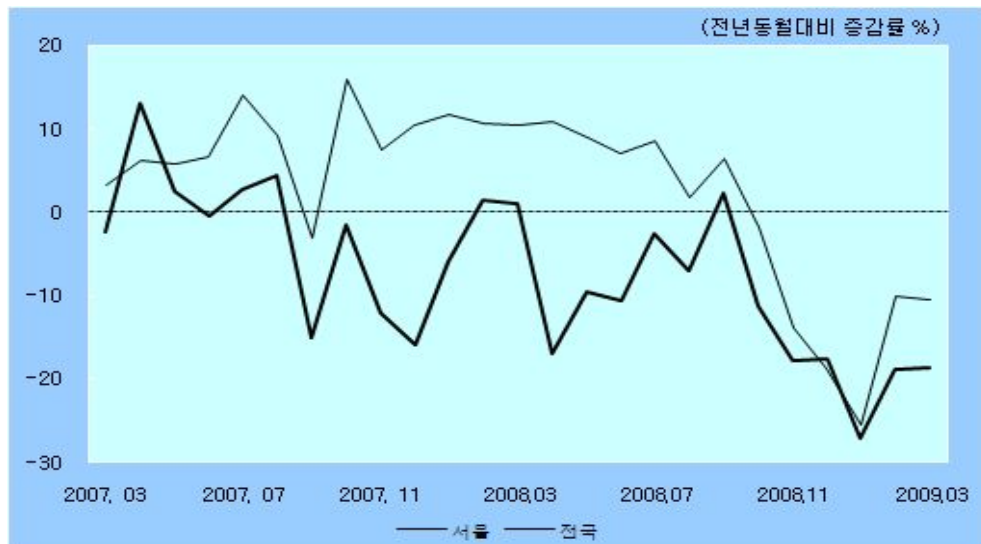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10.5 (15.2)	-13.8 (-12.8)	-18.7 (-9.5)	-25.5 (-5.7)	-10.0 (6.3)	-10.6 (14.5)
	서울 (제조업)	1.2 (10.9)	-17.7 (-14.0)	-17.5 (-1.9)	-27.1 (-11.6)	-18.8 (-0.4)	-18.7 (11.0)
	중공업	-4.1 (3.3)	-30.5 (-16.5)	-28.1 (7.4)	-44.9 (-31.5)	-39.8 (12.1)	-35.9 (10.0)
	경공업	5.1 (16.5)	-9.5 (-12.7)	-10.0 (-6.4)	-16.6 (-0.3)	-3.3 (-5.2)	-7.4 (11.5)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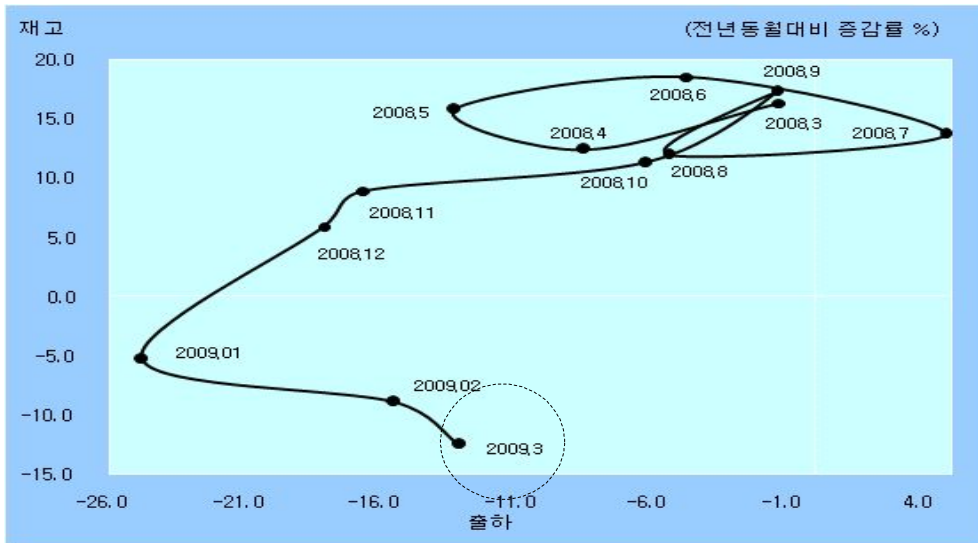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3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3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0.8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감소
  - 업종별로는 식료품, 섬유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의복 및 모피, 기계장비, 1차금속 등에서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05.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
  - 출하지수는 업종별로 생산과 마찬가지로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 기계장비, 의약품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중공업, 경공업 전월대비 45.8%p, 23.0%p로 큰폭 하락
  - 3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7.1%로 전월대비 5.2%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37.5%로 전월대비 -31.2%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45.8%p 감소한 125.3%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23.0%p 감소한 139.3%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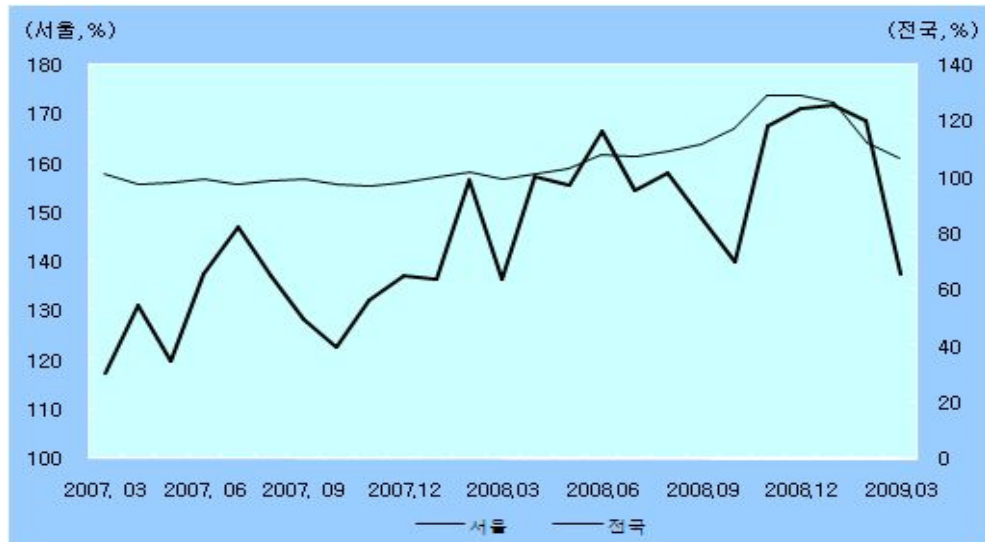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재고율	전국	99.3	128.9	129.2	126.7	112.3	107.1	-5.2
	서울	136.5	167.6	171.1	171.7	168.7	137.5	-31.2
	중공업	126.4	198.9	150.4	192.4	171.0	125.3	-45.8
	경공업	142.5	152.0	177.6	158.3	162.3	139.3	-23.0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3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차량용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그리고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모두 감소함

## ■ 서울 대형소매점의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증가

-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4,053억으로 전국대비 32.7%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로는 백화점 1.8%, 대형마트 4.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9%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로는 의복, 귀금속류 등의 판매호조로 1.8%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의복, 신발 등 계절변동에 따른 패션상품 및 가전, 귀금속, 가구 등과 같은 혼수용품 판매호조로 7.0%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0개 → 금년 65개) 및 의복, 주방용품, 음식료품, 화장품의 판매호조로 4.3%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영업일수 증가(전월 28일 → 금월 31일) 및 각종 행사진행으로 가전, 의복, 운동오락용품의 판매호조로 1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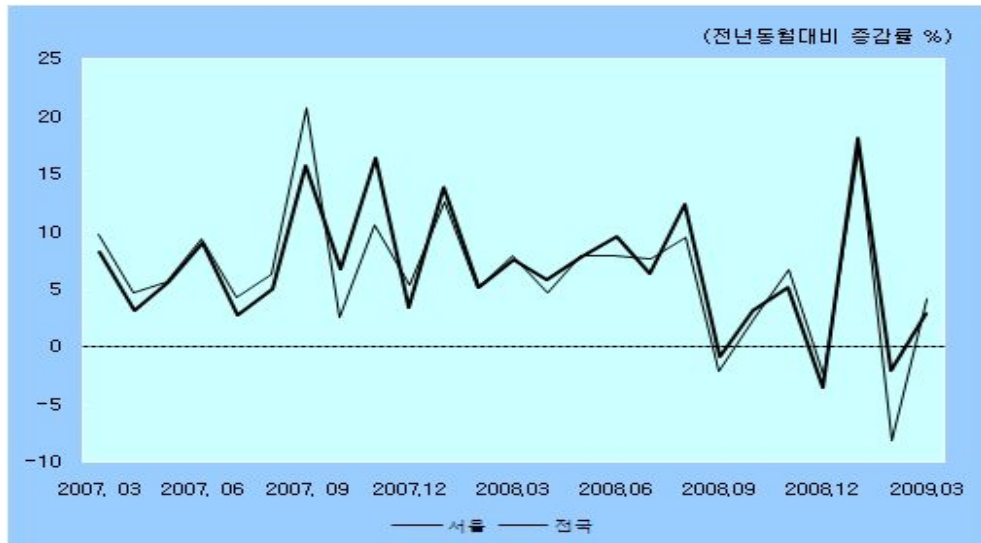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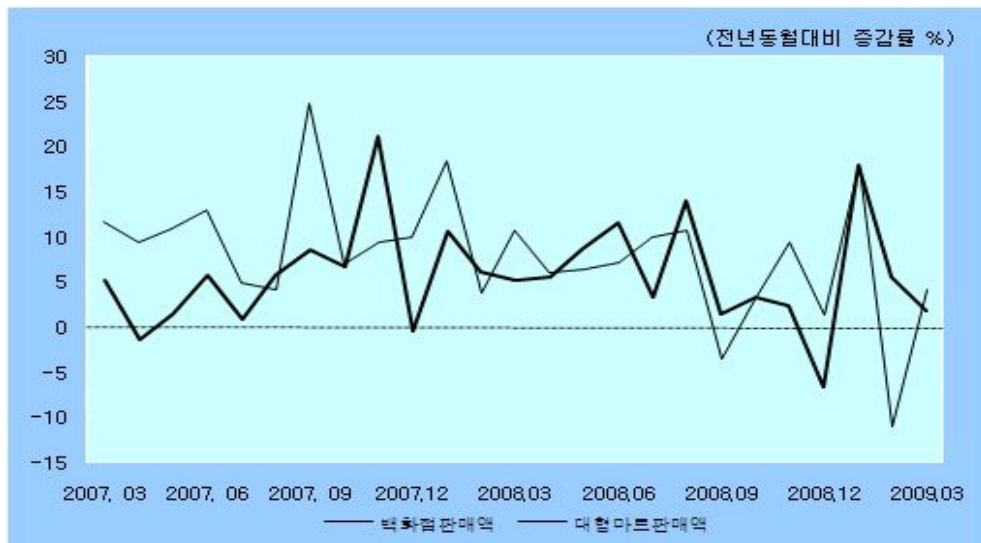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판매액	전국	4128.8 (7.9)	4400.8 (6.7)	4404.3 (-2.6)	4779.3 (17.2)	3754.6 (-8.2)	4296.4 (4.1)
	서울	1366.0 (7.6)	1535.3 (5.1)	1519.2 (-3.5)	1631.9 (18.1)	1273.4 (-2.1)	1405.3 (2.9)
	백화점	777.7 (5.2)	930.6 (2.4)	898.0 (-6.6)	946.3 (18.0)	739.9 (5.5)	791.9 (1.8)
	대형마트 (할인점)	588.2 (10.9)	604.6 (9.5)	621.2 (1.4)	685.6 (18.2)	533.5 (-10.9)	613.4 (4.3)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4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에 비해 모든 부문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6% 각각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의복신발부문이 0.4%, 기타잡비부문이 2.2% 각각 하락하였으며, 주류·담배부문,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 통신부문은 보합
-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 1.7% 상승, 교통부문 0.8% 상승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상승

-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동향을 비교하면 서울은 인천, 부산, 대구와 함께 전국평균인 0.3%과 같게 상승하였으며, 전북, 광주, 경기도는 평균보다 0.4%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월에 비해 배추, 돼지고기 등이 오른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1.7%), 교통부문(0.8%)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전국:0.6%), 전년동월대비 3.3%(전국:3.0%)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6%(전국:3.0%) 전년동월대비 15.4%(전국:14.7%)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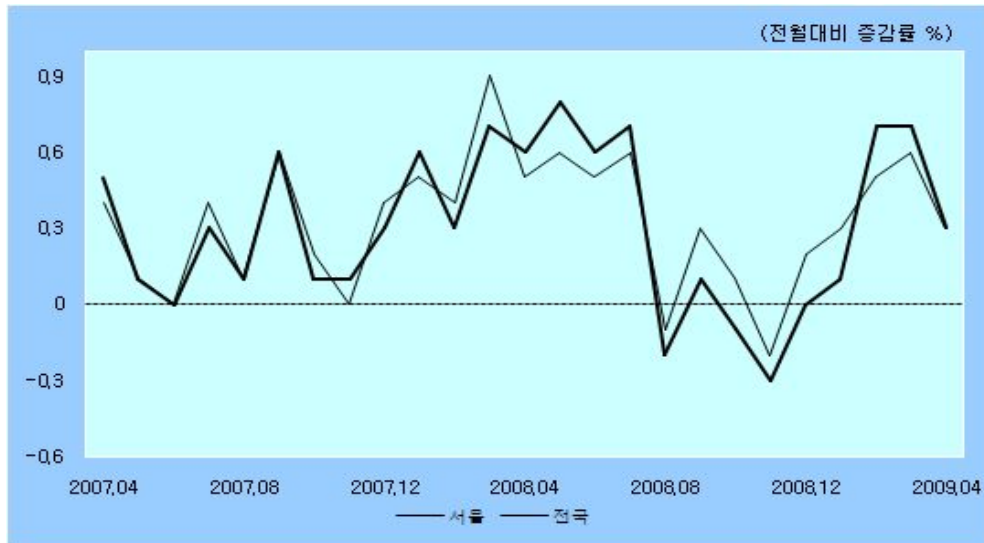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비	전국		0.6 (4.1)	-0.3 (4.5)	0.0 (4.1)	0.1 (3.7)	0.7 (4.1)	0.7 (3.9)	0.3 (3.6)
	서울		0.5 (3.5)	-0.2 (4.2)	0.2 (4.1)	0.3 (3.7)	0.5 (3.9)	0.6 (3.9)	0.3 (3.7)
	상품 성질별	상품	0.8 (4.3)	-1.1 (4.9)	0.3 (4.6)	0.5 (4.4)	1.2 (5.6)	1.1 (6.5)	0.4 (6.1)
		서비스	0.3 (3.1)	0.4 (3.8)	0.1 (3.7)	0.1 (3.4)	0.2 (3.2)	0.4 (2.6)	0.2 (2.5)
	생활물가		0.5 (4.1)	-0.4 (3.6)	-0.4 (2.9)	0.4 (2.9)	0.5 (3.2)	0.9 (3.2)	0.7 (3.3)
	신선식품		-1.0 (-6.7)	-2.0 (-11.7)	3.4 (-7.9)	7.3 (0.3)	1.6 (2.1)	3.2 (10.2)	3.6 (15.4)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4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지속

- 전국 4월 15세 이상인구는 39,9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4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0.2%)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50천명으로 79명(0.6%)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107천명으로 118천명(-1.2%)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음

##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 12월 이후 감소세 지속

- 4월 15세이상인구는 8,3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8%)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0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명(-1.2%)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7 (1.6)	0.4 (-0.1)	0.2 (-2.2)	-0.1 (-1.3)	-0.2 (-0.2)	-0.2 (1.7)	-0.2 (1.6)
	서울	-0.1 (0.0)	-1.8 (-0.1)	-1.4 (-0.8)	-1.4 (0.1)	-2.0 (-1.3)	-1.5 (1.6)	-1.2 (0.3)
	남자	-0.4 (0.2)	-1.0 (0.2)	-1.1 (-1.1)	-0.8 (0.3)	-1.2 (-0.9)	-0.8 (1.3)	-0.9 (0.1)
	여자	0.4 (-0.2)	-2.8 (-0.3)	-2.0 (-0.5)	-2.3 (-0.3)	-3.1 (-1.7)	-2.4 (2.2)	-1.6 (0.6)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0	61.8	60.4	59.5	59.3	60.2	61.2
	서울	62.4	61.5	60.9	60.9	60.1	61.1	61.2
	남자	74.0	73.2	72.4	72.5	71.8	72.7	72.7
	여자	51.5	50.4	50.1	49.9	49.1	50.1	50.4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4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 전국의 4월 취업자 수 50대 이상에서는 증가,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감소

- 4월 취업자는 23,5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8천명(-0.8%)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7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0.1%) 감소하였고, 여자는 9,786천명으로 174천명(-1.7%)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전월대비 3.0%를 기록하였음

## ■ 서울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2.4%, -2.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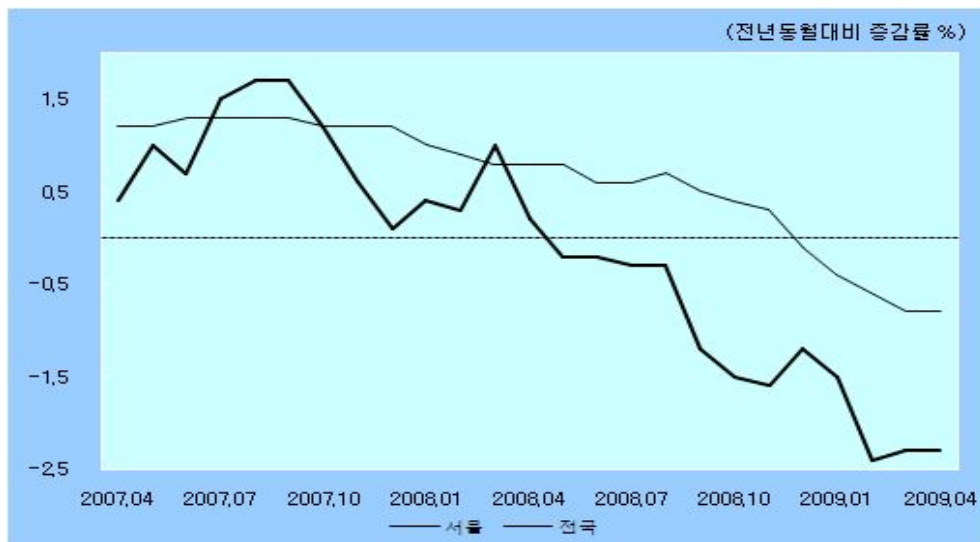
- 4월 취업자는 4,8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천명(-2.3%)이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67천명, 여자는 2,0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8천명(-2.4%), 여자는 48천명(-2.2%)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90천명(5.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2천명(1.6%)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133천명(-20.3%), 건설업 61천명(-14.1%), 농림어업 0.1천명(-2.6%), 도소매·음식숙박업 21천명(-1.6%)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8%)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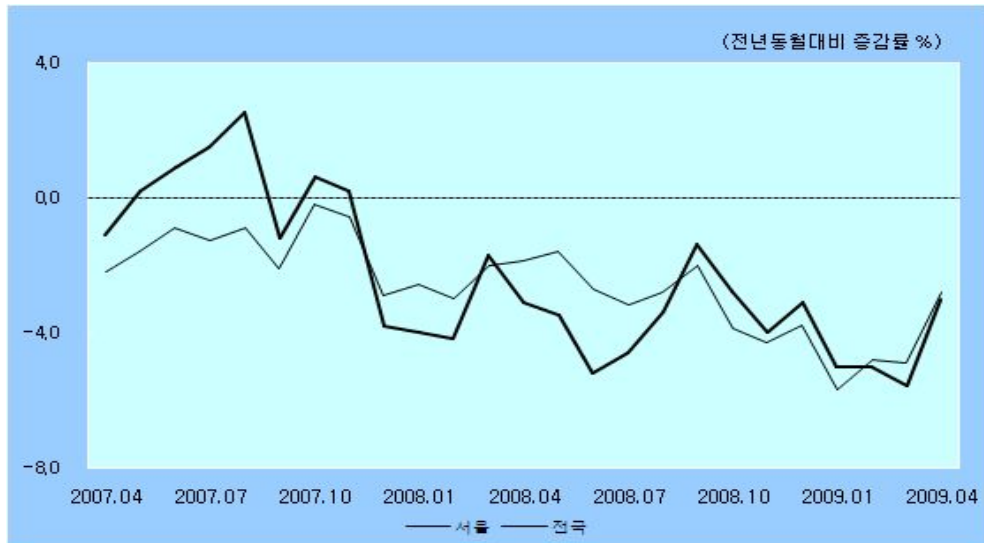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취업자	전국	0.8 (1.7)	0.3 (-0.1)	-0.1 (-2.4)	-0.4 (-1.7)	-0.6 (-0.5)	-0.8 (1.6)	-0.8 (1.8)
	서울	0.2 (0.3)	-1.6 (-0.2)	-1.2 (-0.9)	-1.5 (-0.3)	-2.4 (-2.0)	-2.3 (1.6)	-2.3 (0.3)
	남자	0.1 (0.3)	-1.4 (-0.3)	-1.5 (-1.3)	-1.4 (-0.1)	-2.2 (-1.7)	-2.6 (1.1)	-2.4 (0.4)
	여자	0.3 (0.4)	-1.9 (-0.1)	-0.9 (-0.4)	-1.6 (-0.6)	-2.8 (-2.3)	-1.9 (2.3)	-2.2 (0.1)
청년층 취업자	전국	-1.9 (0.7)	-4.3 (0.1)	-3.8 (-1.0)	-5.7 (0.5)	-4.8 (-1.6)	-4.9 (-1.3)	-2.8 (3.0)
	서울	-3.1 (1.0)	-4.0 (-0.2)	-3.1 (-2.2)	-5.0 (1.6)	-5.0 (-3.2)	-5.6 (-0.2)	-3.0 (3.8)
고령층 취업자	전국		3.3 (-0.9)	1.3 (-8.4)	1.3 (-4.3)	1.6 (0.7)	2.1 (7.5)	8.6 (4.6)
	서울		-1.6 (-1.2)	-1.0 (-2.2)	0.1 (0.1)	0.4 (-1.4)	1.8 (5.2)	-1.9 (0.5)
	55~59세		2.3 (0.5)	1.1 (-2.0)	4.0 (2.4)	3.4 (-0.6)	6.6 (5.1)	6.3 (0.6)
	60세 이상		-4.6 (-2.5)	-2.5 (-2.5)	-3.1 (-1.8)	-2.1 (-2.1)	-2.2 (5.4)	-1.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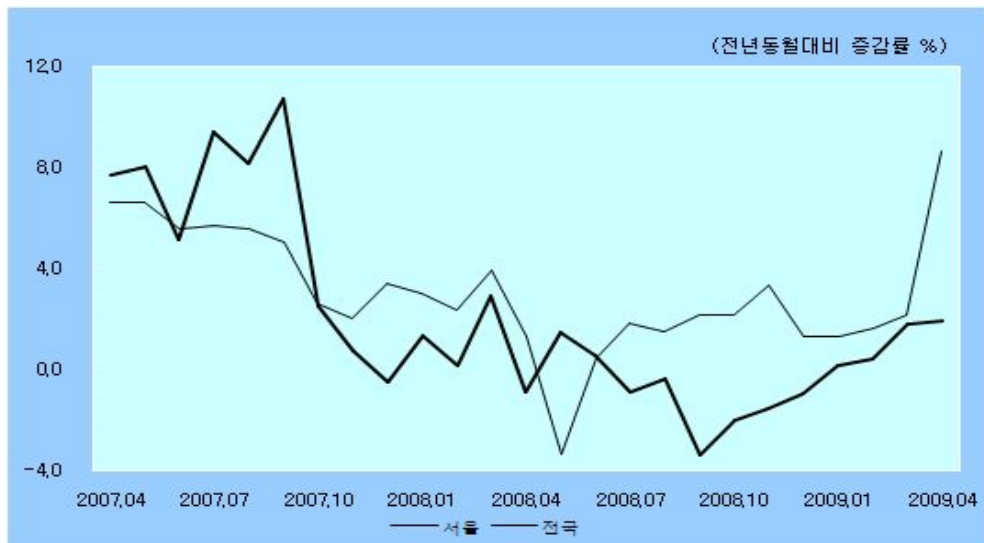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증가, 서비스 종사,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44천명(5.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9천명(2.0%)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63천명(-11.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2천명(-4.1%), 서비스·판매종사자 25천명(-1.9%)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1.5%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08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62천명(-4.9%), 임금근로자는 54천명(-1.5%)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53천명(-4.9%), 무급가족종사자는 9천명(-5.0%)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7천명(4.1%)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66천명(-5.4%), 일용근로자 65천명(-11.2%)이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54시간 이상 취업자 각각 -2.1%, -7.3%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명(12.6%)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2천명(-3.9%)이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천명(14.4%)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38천명(11.7%)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8천명(-2.1%)이 감소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도 114천명(-7.3%)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10.2%)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산업별	제조업	-2.8 (0.5)	-14.4 (-10.6)	-15.3 (-0.7)	-13.5 (2.9)	-14.4 (-5.8)	-12.0 (11.6)	-20.3 (-9.0)
	SOC 및 기타서비스업	0.7 (0.3)	0.2 (1.2)	0.8 (-0.9)	0.3 (-0.7)	-0.7 (-1.5)	-0.8 (0.4)	0.4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0.0 (1.2)	3.2 (1.6)	4.2 (-0.6)	3.7 (-1.8)	5.3 (0.8)	3.8 (-0.5)	5.1 (2.5)
	도소매·음식숙박	1.0 (-1.5)	-1.1 (-0.4)	-1.5 (1.5)	-1.9 (-1.1)	-3.3 (-1.5)	-3.4 (0.4)	-1.6 (0.3)
	전기·운수·통신·금융	2.9 (-0.4)	-3.1 (2.8)	-1.0 (-2.0)	-0.6 (3.4)	-2.0 (-3.4)	-2.1 (-0.8)	1.6 (3.3)
	건설업	-1.2 (3.6)	-2.6 (2.0)	-2.4 (-7.8)	-4.5 (-1.5)	-14.8 (-8.1)	-9.4 (6.9)	-14.1 (-1.7)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6.9 (-0.9)	4.6 (1.4)	3.6 (-0.1)	-2.2 (-0.3)	1.7 (1.2)	-1.2 (-1.5)	2.0 (2.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조종사	-5.1 (3.0)	-7.3 (-3.7)	-7.1 (-3.2)	-7.3 (-1.7)	-10.3 (-5.1)	-5.6 (6.5)	-11.4 (-3.4)
	서비스·판매종사자	-0.8 (-2.9)	-2.8 (2.0)	-1.2 (-0.7)	0.6 (0.4)	-2.3 (-2.8)	-4.6 (0.3)	-1.9 (-0.2)
	사무종사자	0.6 (2.8)	0.1 (-0.5)	0.9 (1.4)	6.7 (0.8)	3.7 (-1.2)	5.0 (1.6)	5.4 (3.2)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8 (1.5)	0.0 (-0.1)	0.3 (-0.7)	-0.2 (0.1)	-1.1 (-2.4)	-0.1 (1.9)	-1.5 (0.1)
	비임금근로자	-1.5 (-2.9)	-6.1 (-0.5)	-5.5 (-1.5)	-5.1 (-1.5)	-6.1 (-0.7)	-8.5 (0.8)	-4.9 (1.0)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4월 서울의 실업률 전국대비 1.2%p 높은 수준

### ■ 전국의 실업자 및 실업률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전국의 4월 실업자는 9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8천명(18.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3천명(17.8%) 증가하였고, 여자는 3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명(21.1%) 증가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여자는 3.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보합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 서울의 실업률 5.0%로 전국의 실업률에 비해 1.2%p 높음

- 4월 실업자는 2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명(27.7%)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천명(33.1%), 여자는 84천명으로 13천명(18.2%)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5.0%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8%로 전년동월대비 1.5%p, 여자는 3.9%로 0.6%p 각각 상승
- 서울시 실업률은 5.0%로 전국의 실업률 3.8%에 비하여 1.2%p 높은 수준

### ■ 서울의 고용률 58.2%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1.8%p 하락

- 4월 고용률은 58.2%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5%로 전년동월대비 2.3%p, 여자는 48.4%로 1.5%p 각각 하락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8.8%)에 비해 0.6%p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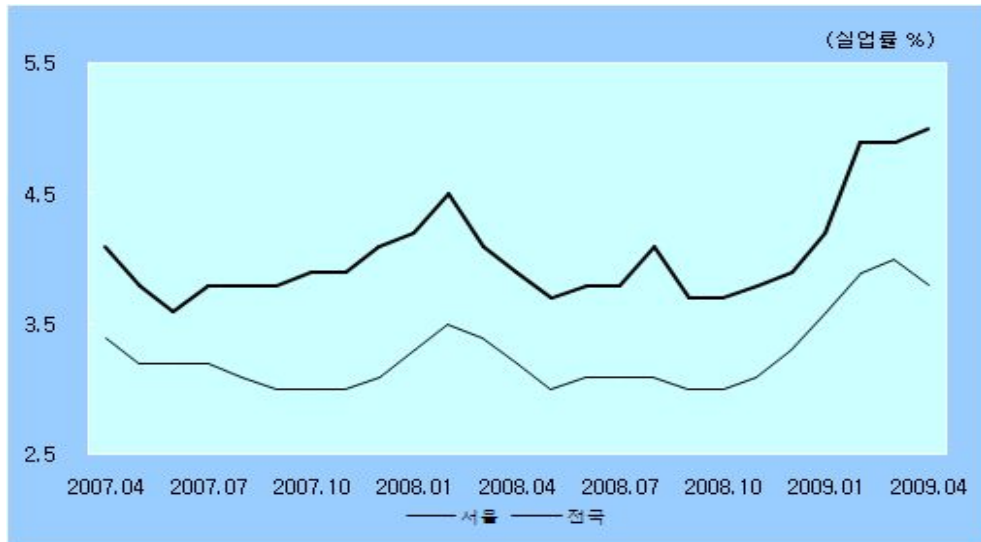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실업률	전국		3.2	3.1	3.3	3.6	3.9	4.0	3.8
	서울		3.9	3.8	3.9	4.2	4.9	4.9	5.0
	성별	남자	4.3	4.6	4.8	5.2	5.9	6.1	5.8
		여자	3.3	2.8	2.6	2.9	3.5	3.4	3.9
고용률	전국		60.0	59.9	58.4	57.3	57.0	57.9	58.8
	서울		60.0	59.1	58.6	58.3	57.2	58.0	58.2
	성별	남자	70.8	69.9	68.9	68.7	67.5	68.2	68.5
		여자	49.9	49.0	48.8	48.5	47.3	48.4	48.4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2009년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큰 폭 증가(전년동월 대비)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7,16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1%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 3,53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3.3%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1.5%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32.1% 증가. 건축부문은 47.2% 증가하였고 토목부문은 101.3% 증가
- 공공부문은 사무실 및 관공서 건립공사 수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민간부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무실공사 수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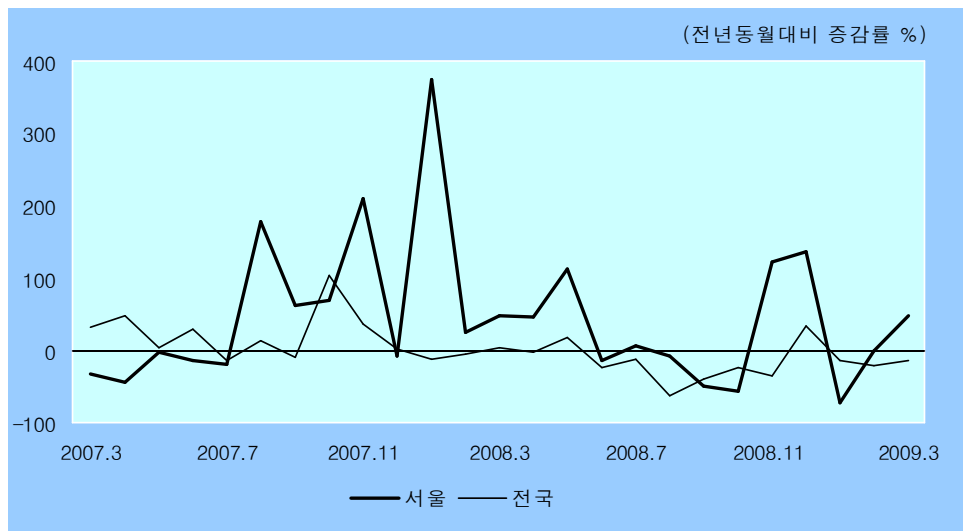
- 2009년 3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2,488.3천㎡로 전년동월 대비 44.6% 증가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86.5% 증가, 연립주택의 경우 15.0% 증가, 아파트는 50.5%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27.1%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상업 부문이 41.7% 증가, 공업부문이 60.1% 감소, 문교 및 사회 부문이 85.5% 증가, 기타 부문이 82.0%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46.8%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8,621	7,954	21,721	5,333	4,879	7,354	-14.7	50.7
서울		1,151	3,014	3,736	626	1,086	1,716	49.1	58.0
발주 자별	공공	237	596	678	266	195	502	111.5	157.4
	민간	896	2,307	3,042	359	827	1,183	32.1	43.0
공종 별	건축	1,111	2,855	3,313	520	954	1,635	47.2	71.4
	토목	39	158	414	104	130	78	101.3	-40.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		1,706.4	1,978.9	2,827.7	1,271.6	1,430.2	2,468.3	44.6	72.6
주거용	소계	49.0	29.7	169.2	19.2	39.1	35.7	-27.1	-8.7
	단독	7.4	8.8	7.4	3.5	7.2	13.8	86.5	91.7
	연립	2.0	2.8	10.7	2.2	0.0	2.3	15.0	-
	아파트	39.6	18.1	151.1	13.5	31.9	19.6	-50.5	-38.6
비주거용	소계	1,657.4	1,949.2	2,658.5	1,252.4	1,391.1	2,432.6	46.8	74.9
	상업	1,036.7	1,175.1	1,482.0	820.8	1,032.8	1,468.6	41.7	42.2
	공업	50.6	207.0	326.3	29.8	4.0	20.2	-60.1	405.0
	문교/사회	502.3	563.2	797.5	397.4	353.8	931.6	85.5	163.3
	기타	67.8	3.9	52.7	4.4	0.5	12.2	-82.0	2,340.0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4월 서울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큰 폭 반등

## ■ 4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세를 접고 반등

- 4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1% 상승하며 6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
-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규제완화 및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해제 기대감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매수심리 회복으로 거래 증가가 그 원인임
- 4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강남 등 수요자 선호지역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을 다소 만회하며 최고점인 2008년 9월 대비 2.1% 하락한 수준으로 조사됨

## ■ 4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 큰 폭 반등

- 서울 강남지역(0.4%)은 제2 롯데월드 건설 및 재건축 규제완화, 주택가격 저점도달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월(-0.1%) 하락에서 큰 폭으로 반등
- 규제완화 및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해제 기대감에 따른 전반적인 매수심리 회복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지역이 크게 확대되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3% 상승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전 국		99.2	99.0	99.1	-0.1	0.1
서울		99.5	99.0	99.3	-0.3	0.3
아파트		101.2	98.7	99.0	-2.2	0.4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8.1	98.9	99.1	1.0	0.2
	강남	101.1	99.1	99.5	-1.6	0.4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지역 6개월만에 반등

-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상승하여 6개월만에 반등함
- 강북지역에서는 용산구(2.6%)가 한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공람 및 한남뉴타운 내 토지거래 허가면적 완화에 따른 단독주택 거래 증가로 큰 폭으로 반등하고, 마포구(1.2%)가 상암지구 133층 초고층 빌딩 9월 착공 발표 및 합정전략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함

#### ■ 강남지역 전월 하락에서 큰 폭 상승 반전

- 강남지역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0.1%)에서 큰 폭 상승 반전
- 강남지역에서는 강동구(1.5%)가 재건축 규제완화 및 저금리에 따른 거래 증가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서초구(0.9%)와 강남구(0.8%)는 투기지역 해제 기대감과 한강변 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전월 보합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

#### ■ 4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4월 24일 기준)은 1,751.32만원으로 전월(1,739.28만원)보다 큰 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15만원), 서초구(2,551만원), 용산구(2,513만원), 송파구(2,337만원), 양천구(1,863만원), 광진구(1,776만원), 강동구(1,755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3만원), 은평구(1,075만원), 중랑구(1,115만원), 강북구(1,120만원) 등 순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4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다소 둔화

#### ■ 4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상승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적체된 물량들이 해소되면서 0.2%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수도권(0.3%)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광역시(0.0%)가 보합을 회복, 기타지방(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 상승하며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고 단독주택은 보합(0.0%)을 회복, 연립주택(0.1%)은 5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함

#### ■ 4월 서울 강남지역 상승세 다소 둔화

- 강북지역(0.3%)에서는 용산구(0.9%)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크게 상승하고 마포구(0.7%)도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물량 부족현상을 보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
- 강남지역(0.6%)에서는 송파구(1.3%), 강동구(1.1%), 서초구(1.0%)가 신규 아파트 물량이 소진된 가운데 신혼부부 등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규모 전반에 걸쳐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월에 비해 상승세는 다소 둔화됨

#### ■ 주요 상승지역은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 강북지역에서는 용산구(0.9%), 마포구(0.7%) 등 지역이 크게 상승하였고 성동구(0.6%)와 강북구(0.5%)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반면, 서대문구(-0.1%), 중랑구(-0.1%)는 전반적인 상승세와 달리 소폭 하락함
- 강남지역에서는 송파구(1.3%), 강동구(1.1%), 서초구(1.0%) 등 지역이 크게 상승하였고, 구로구(0.0%)는 보합세를 나타내었으며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금천구(-0.1%)로 나타났음.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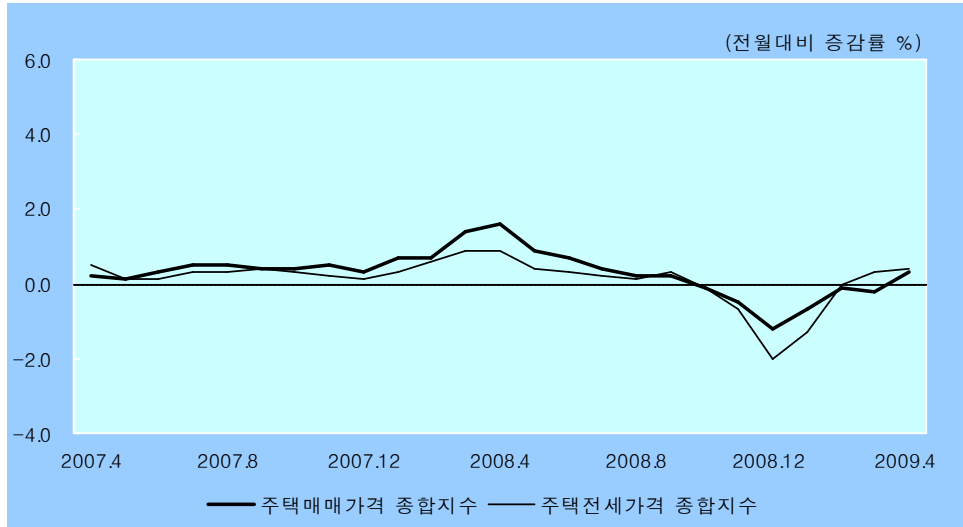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3월	4월		
전국		100.0	98.9	99.1	-0.9	0.2
서울		101.5	99.1	99.5	-2.0	0.4
아파트		103.6	99.2	99.8	-3.7	0.6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0.2	98.7	99.0	-1.2	0.3
	강남	102.9	99.4	100.0	-2.9	0.6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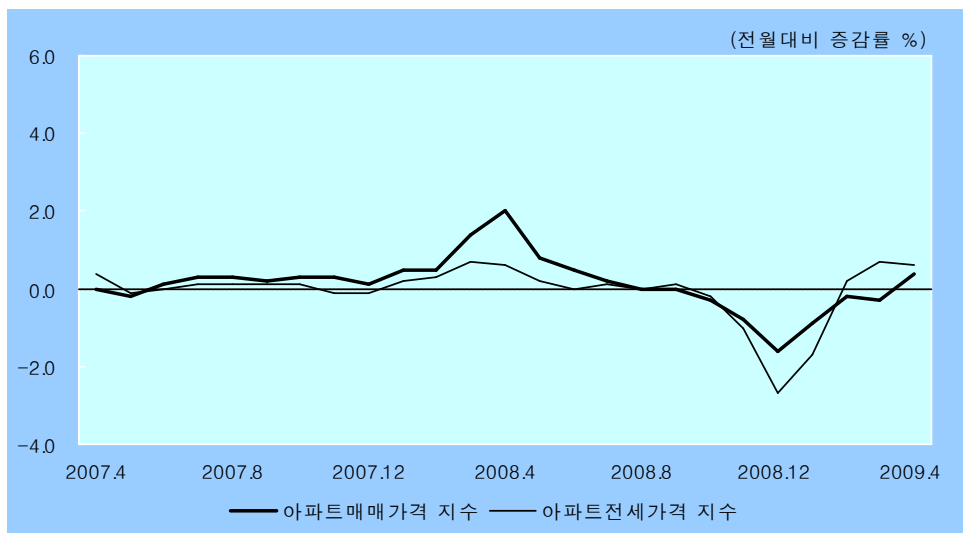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상승세 지속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8.7%로 지난달 상승세 반전이후 상승세 이어감.  
1월 38.2% → 2월 38.3% → 3월 38.6% → 4월 38.7%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월 전국 평균 52.5%보다 13.8%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8%)의 수준 유지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4%, 강남 36.5%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9%p이며 지난  
달(4.9%p)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  
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장단기시장금리 하락세 지속

## 금리

## ■ 단기시장금리 사상최저 수준 경신

-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동결(4.9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하여 사상최저 수준을 경신
- 시장금리와 연동된 은행 여신금리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

## ■ 장기시장금리 하락세 지속

- 국고채금리는 4월중 연기금 등의 매수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 완화,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큰 폭 하락
- 장기크레딧物 금리는 신용위험 경계감 완화, 고금리를 겨냥한 매수세 지속 등으로 대폭 하락

## 주가

## ■ 4월 KOSPI 지수 급등

-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및 국내외 경기 조기회복 기대 등으로 국내주가는 급등세  
(08.10.24일 939p → 12월말 1,124p → 09.1월말 1,162p → 2월말 1,063p → 3월말 1,206p → 4월말 1,369p → 5.8일 1,412p)

## ■ 4월중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규모 크게 확대

- 외국인 투자자 3월 중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4월에 순매수 규모를 크게 확대  
· 외 국 인: 08년 10월 -4.9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0.8조원 → 09.1월 +0.7조원 → 2월 -1.1조원 → 3월 +1.1조원 → 4월~5월8일 +5.1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금리	국고채(3년)	4.88	3.97	3.44	3.78	3.69	3.76	0.07
	CD(91일물)	5.36	4.68	3.22	2.70	2.45	2.42	-0.03
	콜금리(1일)	4.99	3.27	2.43	2.06	1.77	1.80	0.03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48	-0.71	0.22	1.08	1.24	1.34	0.10
주가	KOSPI	1,776.58	1,114.90	1,156.37	1,139.75	1,140.45	1,322.10	181.65
	KOSDAQ	647.78	324.98	355.10	377.44	390.98	484.22	93.24
환율 (₩/US\$)		987.24	1368.8	1354.68	1440.19	1,453.35	1,336.28	-117.07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SC 제일은행 - 주택금융공사」 간 대규모 MBS스왑(2.0조원)으로 증가 폭이 크게 축소  
(2월 +2.8조원 → 3월 +1.9조원 → 4월 1.1조원)
-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 LTV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대출 수요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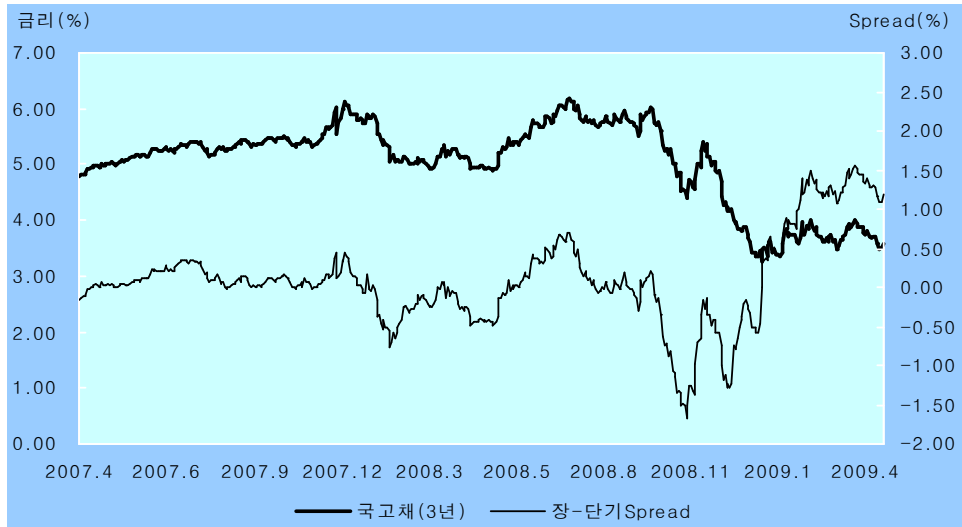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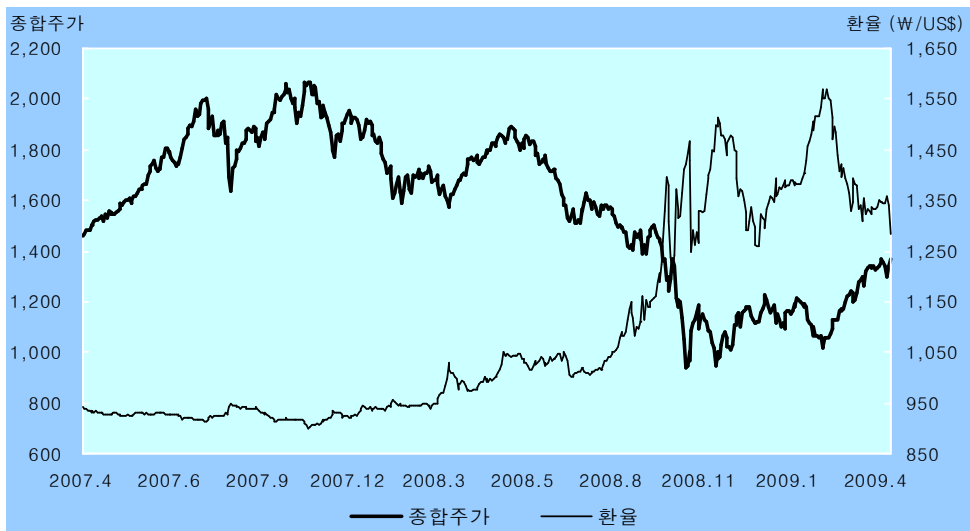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연중	12월	1월	2월	3월	4월	2009년	
								3월	4월
가계대출 <sup>1)</sup>		25.0	1.6	-1.7	2.8	1.9	1.1	391.6	392.7
주택담보대출 <sup>2)</sup>		18.1	2.3	1.8	3.3	2.5	1.2	247.3	248.5
마이네스통장대출 등		6.8	-0.8	-3.2	-0.3	-0.6	0.1	142.7	142.8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3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17조 364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7,213억원 (0.64%) 증가
- 3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1조 4,440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조 4,108억원 (0.89%)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예금은행	833,537.30	917,110.1	921,674.4	926,602.2	934,597.3	7,995.1	0.86
	비은행기관	264,349.60	284,509.3	284,912.6	282,712.9	282,439.1	-273.8	-0.10
	합계	1,097,886.90	1,201,619.4	1,206,587.0	1,209,315.1	1,217,036.4	7,721.3	0.64
서울	예금은행	358,932.40	406,595.4	410,284.8	411,650.6	416,295.3	4,644.7	1.13
	비은행기관	84,192	85,589.5	87,824.7	85,382.6	85,148.7	-233.9	-0.27
	합계	443,124.40	492,184.9	498,109.5	497,033.2	501,444.0	4,410.8	0.89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3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3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3.6%를 나타내어 지난달의 하락세에서 상승세 반전(08년 11월 61.5% → 12월 61.9% → 09년 1월 63.1% → 2월 62.4% → 3월 63.6%)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지난달의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08년 11월 87.6% → 12월 88.2% → 09년 1월 89.5% → 2월 88.6% → 3월 90.1%)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88.0	88.2	89.5	88.6	90.1	1.5
서울	59.5	61.9	63.1	62.4	63.6	1.2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3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3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564개로 전년동월비로는 2.3%(106개) 감소하였으나, 전월 비로는 8.0%(337개)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
- 이는 2월의 각종지표개선(수출, 생산, 출하, 재고 등)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국제금융시장 불안감 진정에 따른 환율하락 및 주가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증가

- 3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559개로 전년동월대비 6.6%(110개) 감소하였으나, 전월대 비는 10.6%(150개) 증가
-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 ■ 서울 서비스업과 제조업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 수는 87개로 전월대비 24.3%(28개) 감소
- 서비스업은 1,231개로 전월대비 12.4%(136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232개로 전월대 비 17.8%(35개) 증가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670	3,797	3,664	4,227	4,564	337	8.0	-106	-2.3
서울	1,669	1,328	1,195	1,409	1,559	150	10.6	-110	-6.6
서비스업	1,374	1,075	937	1,095	1,231	136	12.4	-143	-10.4
제조업	101	191	193	197	232	35	17.8	131	129.7
건설 및 설비업	189	59	63	115	87	-28	-24.3	-102	-54.0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3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5%로 전월대비 0.01%p 상승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23개로, 전월(230개)보다 3.0%(7개) 감소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3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92개로 전월대비 26.0%(19개) 상승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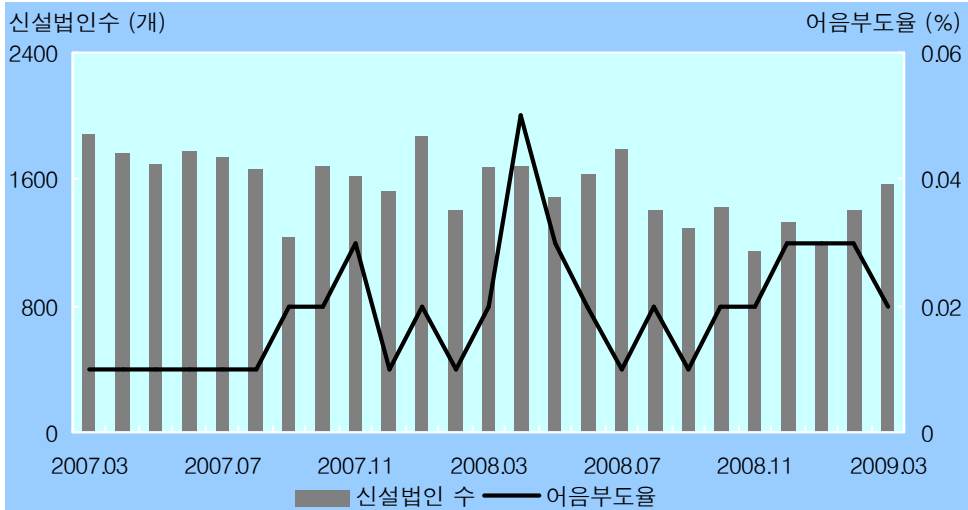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4	0.04	0.04	0.05	0.01	25.0	0.02
전국 부도업체 수	176	345	262	230	223	-7	-3.0	47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3	0.02	-0.01	-33.3	0.00
서울 부도업체 수	72	120	104	73	92	19	26.0	2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특례보증 집중처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체제 강화

## ■ 보증공급 총량지표의 계속적 대폭 증가 추세

- 4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5,828건, 281,592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78.4%, 금액 기준 5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건수 기준 1,033.8%, 금액 기준 414.4%의 폭발적 성장세를 나타냄
- 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4월 「제2차 특례보증 집중처리기간 운용」을 통한 보증공급 적체해소의 성과에 기인함
- 다만, 상대적으로 소액건의 특례보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건당평균금액의 감소추세는 이어짐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396	3,679	2,336	4,749	8,873	15,828	6,955	78.4	14,432	1,033.8
금액	54,741	63,648	44,774	99,315	178,725	281,592	102,867	57.6	226,851	414.4
건당평균금액	39.2	17.3	19.2	20.9	20.1	17.8	-2.3	-11.4	-21.4	-54.6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제조업 비중의 감소 및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 심화

- 4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월대비 제조업 비중은 건수기준 1.0%p, 금액기준 3.0%p 감소를 나타냄
-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전월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1.8%p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4개월 연속 지속적 증가 추세(2009년 1월 대비 건수기준 2.2%p, 금액기준 4.3%p 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137	5,818	3,443	3,538	1,892	15,828
비율	7.2	36.8	21.8	22.4	11.8	100
금액	22,604	105,746	55,789	62,257	35,196	281,592
비율	8.0	37.6	19.8	22.1	12.5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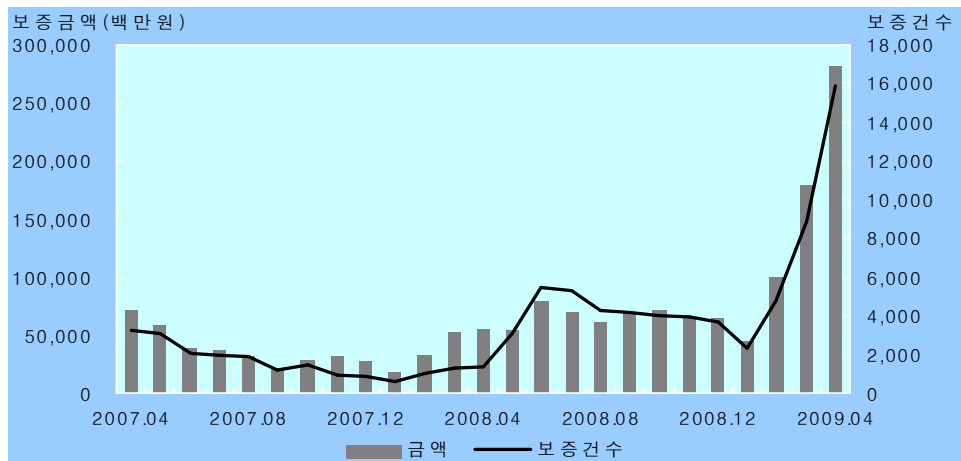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4월 「제2차 집중업무처리기간」 운용 결과, 소상공인의 경우 전월 대비 건수기준 80.4%, 금액기준 62.7% 신용보증공급 증가율 달성
- 나머지 기업군인 소기업과 중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대비 건수기준 각각 0.8%p 및 0.3%p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소상공인 대상 보증공급 집중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 연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의 확대 시행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2	2009.03	2009.04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4,551	8,552	15,431	6,879
	비율	95.8	96.4	97.5	1.1
	금액	89,629	161,899	263,350	101,461
	비율	90.3	90.6	93.5	2.9
소기업	건수	161	263	348	85
	비율	3.4	3.0	2.2	-0.8
	금액	7,854	13,257	14,890	1,623
	비율	7.9	7.4	5.3	-2.1
중기업	건수	37	58	49	-9
	비율	0.8	0.6	0.3	-0.3
	금액	1,835	3,572	3,352	-218
	비율	1.8	2.0	1.2	-0.8
합계	건수	4,749	8,873	15,828	6,955
	비율	100	100	100	0
	금액	99,315	178,725	281,592	102,867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 전국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

- '09년 2월부터 3개월 연속 흑자 달성과 함께 지난달(42.9억달러)의 무역수지 최고 흑자기록을 새로 갱신하여 57.9억달러 달성
- 수출은 선박류의 수출호조,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달에 비해 23.5억달러(8.4%) 증가한 반면, 수입은 유가·원자재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지난달에 비해 8.5억달러(3.6%) 증가에 그친 것이 주요 원인

####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4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6% 감소한 314.2억달러, 수입은 35.6% 감소한 246.3억달러를 기록
- 교역량(수출액+수입액)도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이번 달 6.2% 증가를 비롯하여 '09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 ■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4월 서울의 수출은 26.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9% 감소하였고, 수입은 62.8억달러로 23.8% 감소
- 서울의 경우는 전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57.9억달러)를 달성한 것과 달리 무역 적자(36.7억달러)로 나타나 전월대비 적자 폭 확대

#### ■ 4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194,911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기타섬유제품,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78,233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금은 및 백금이고, 수입의 경우 원동기 및 펌프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7,850	27,118	21,368	25,458	28,068	30,418	-7,432	-19.6	2,350	8.4
	수입	38,260	26,576	24,724	22,529	23,782	24,630	-13,630	-35.6	848	3.6
서울	수출	3,179	2,287	1,991	2,235	2,586	2,609	-570	-17.9	23	0.9
	수입	8,241	5,469	5,050	5,149	5,555	6,282	-1,959	-23.8	727	13.1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4월		2009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97,013	21.2	194,911	-1.1
2	자동차부품	145,405	45.8	142,079	-2.3
3	기타섬유제품	48,320	20.1	122,553	153.6
4	반도체	196,975	-5.7	111,714	-43.3
5	금은및백금	12,967	988.2	108,313	735.3
6	합성수지	120,260	17.3	107,250	-10.8
7	컴퓨터	156,106	80.8	105,538	-32.4
8	고무제품	125,352	17	99,374	-20.7
9	무선통신기기	80,204	-3.8	88,140	9.9
10	인조장섬유직물	88,545	36.5	83,636	-5.5
합계		3,179,400	41.7	2,609,066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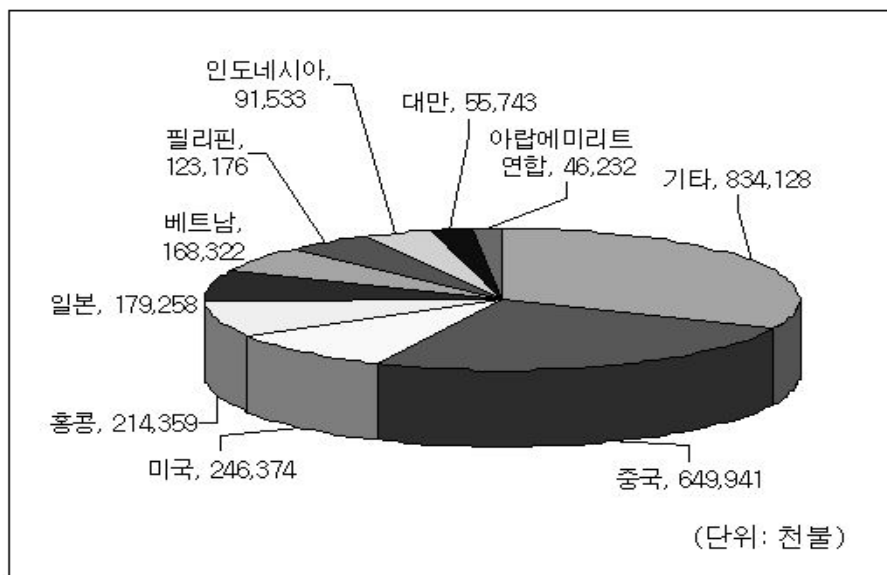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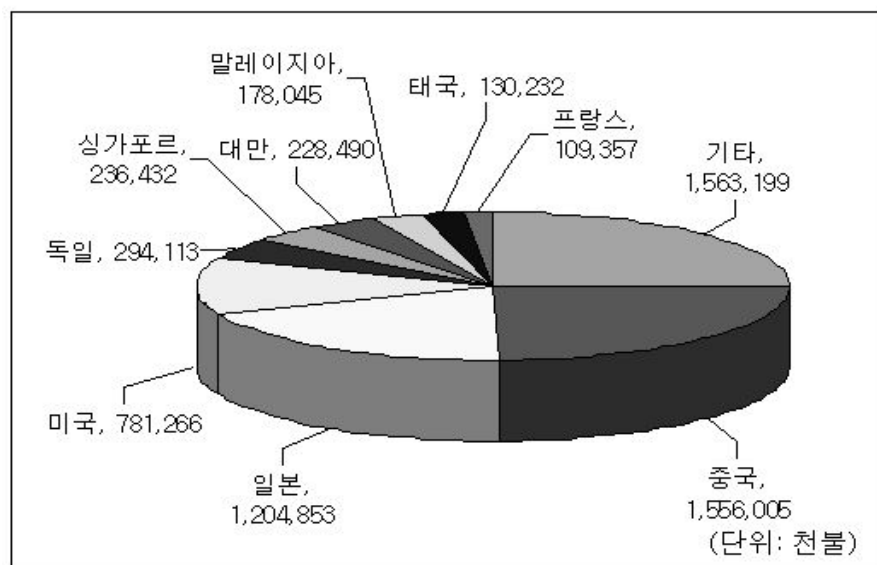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4월		2009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844,113	111.1	678,233	-19.7
2	컴퓨터	482,871	-18.2	439,887	-8.9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23,162	83.9	356,617	10.4
4	의류	321,878	44.3	208,796	-35.1
5	석유제품	115,568	-15.4	181,429	57.0
6	원동기및펌프	82,307	36.8	175,716	113.5
7	플라스틱제품	84,492	13.9	175,438	107.6
8	자동차	251,074	-5.7	139,599	-44.4
9	곡실류	155,753	80.5	138,271	-11.2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7,647	203.5	135,153	25.6
합계		8,241,334	39.5	6,281,992	-23.8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